

정답 및 해설



정답

1. ②	2. ①	3. ④	4. ③	5. ④
6. ⑤	7. ③	8. ④	9. ③	10. ③
11. ⑤	12. ②	13. ①	14. ⑤	15. ②
16. ①	17. ③	18. ①	19. ⑤	20. ③
21. ⑤	22. ②	23. ③	24. ①	25. ④
26. ⑤	27. ①	28. ④	29. ③	30. ②
31. ①	32. ⑤	33. ⑤	34. ③	35. ③
36. ②	37. ④	38. ①	39. ①	40. ④
41. ④	42. ②	43. ④	44. ⑤	45. ②
46. ②	47. ③	48. ⑤	49. ②	50. ①
51. ②	52. ④	53. ③	54. ②	55. ③
56. ①	57. ②	58. ④	59. ③	60. ⑤

해설

듣는 내용은 [www.edutopia.com](http://www.edutopia.com)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 듣기·말하기 <<<<

1. 1번! 이제 전화 통화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화 벨 소리)  
 남성: 안녕하세요. 깔꿈 전자 서비스센터 기사 한친절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성: 네, 수고하십니다.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가 안 돌아가요. 얼었나 봐요.  
 남성: 요즘 날씨가 추워서 세탁기가 얼었다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세탁기 앞에 서 계시나요?  
 여성: 네.  
 남성: 먼저 언 수도꼭지를 녹여야 되거든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수도꼭지를 감싸 주세요.  
 여성: 얼마나요?  
 남성: 10분에 한 번씩, 다섯 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여성: 네, 잠깐만요. 메모 좀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남성: 수도꼭지에 연결된 급수관 보이시죠?  
 여성: 네.  
 남성: 급수관이 세탁기에 연결된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감싸서 녹여 주시고요. 그런 다음 급수관을 빼서 뜨거운 물에 담가 주세요.  
 여성: 그런 다음에는요?  
 남성: 이제는 세탁기 안의 얼음을 녹여야 합니다. 세탁조에 뜨거운 물은 10리터 정도 부으세요.  
 여성: 끓는 물로요?

남성: 아뇨. 펄펄 끓는 물 말고 좀 뜨겁다 싶은 물로 부으세요. 그걸 붓고 한 시간 정도 그대로 두세요. 그럼 녹을 겁니다.

여성: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남성: 마지막으로요. 물 빠지는 배수관 아시죠?

여성: 네.

남성: 세탁기 옆에 있는 배수관 곁이에 배수관을 걸고 따뜻한 물을 그 안에 부어 넣으세요.

여성: 아, 네.

남성: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여성: 네, 감사합니다.

남성: 깔꿈 전자 서비스 한친절이었습니다.

☞ 세부 내용의 확인

정답 ②

기사가 말하는 장면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풀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기사는 제일 먼저 언 수도꼭지를 녹이라고 했고(①), 다음으로 급수관(⑤), 세탁조(④), 배수관(③) 순으로 녹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세탁기를 분해 하라고는 하지는 않았다.

2. 2번! 이번에는 미술관에서 두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학생: 와, 미술관에 오니까 좋은 작품들을 많이 감상할 수 있어서 참 좋다.  
 남학생: 그렇지? 여기서 작품들을 직접 보니까,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여학생: 맞아. 계속 서서 봤더니 힘드네. 어, 여기 웬 침대가 있지? 좀 앉았다가 가자.  
 남학생: 어, 앉으면 안 돼. 그것도 예술 작품인가 봐.  
 여학생: 뭐라고? 이 침대가 무슨 예술 작품이야?  
 남학생: 여기 작품 이름이 써어 있잖아, '침대의 꿈'.  
 여학생: 이걸 좀 심했다. 막 자다 일어난 내 침대랑 똑같은데……. 너는 이게 정말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니?  
 남학생: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으니까 예술 작품이겠지.  
 여학생: 음, 너 아까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라고 했잖아. 우리 엄마는 내 침대 보고 지지분하다고 항상 혼내시는데, 이 침대도 만만치 않아. 그런데 무슨 예술 작품이니?  
 남학생: 그런가? 그래도 이게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음, 이거 아닐까? 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우리에게 전해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  
 여학생: 작가가 이 침대로 말하려 하는 게 뭔데?  
 남학생: 음, 침대를 통해 자유로워지고 싶은 꿈을 말한 것은 아닐까?

여학생: 아니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이 예술 작품이라는 말도 이상해. 저기 비상구라고 써어진 표지판을 봐. 저 표지판을 만든 사람도 표지판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 주고 있지만 저게 예술 작품은 아니잖아.

핵심 내용의 파악

정답 ①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두 사람은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인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즉,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 대화의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대화의 주제는 예술 작품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3. 3번 다음은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우리 학생들을 보면 너무 약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당히 맞서 이겨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때로는 힘든 일도 해야 하고 어려운 상황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토스카니니의 이야기를 통해, '시련의 극복'을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관현악단의 첼로 연주자였던 토스카니니는 심한 근시로 악보를 잘 볼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첼로 연주를 포기하였겠지만 토스카니니는 달랐습니다. 다른 연주자들이 연주를 마치고 돌아갈 때 토스카니니는 홀로 남아 다음 연주에 사용할 악보를 모두 암기하였습니다. 토스카니니의 이런 끈질긴 노력은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지휘자가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각 악기의 연주자들은 자신이 연주할 부분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휘자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연주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연주자들은 토스카니니를 생각했습니다. 토스카니니가 바로 모든 악보를 완전히 암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스카니니는 임시 지휘자가 되어 단상에 올라 완전히 외워 둔 악보 덕분에 지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부터 토스카니니는 지휘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최고의 지휘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시련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토스카니니처럼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물음과 답지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답지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첫 번째 학생

원하지 않는 목표라 하더라도 계속 노력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학생입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다면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을 거야.

세 번째 학생입니다.

기회가 찾아 올 때를 침착하게 기다리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네 번째 학생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노력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다섯 번째 학생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해.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④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토스카니니는 잘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였기 때문에 최고의 지휘자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는 네 번째 학생과 같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언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4. 4번! 이번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대담 장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고기를 꼭 먹어야 하나?'의 저자인 나채식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나채식: 안녕하세요.

사회자: 선생님 책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채식을 하는 사람은 봤는데, 선생님은 다른 이유 때문에 육식을 반대하시던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나채식: 네, 저는 먹기 위해 동물들을 사육하고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닭은 우리에게 고기를 제공해 주기 위해 좁은 양계장에서 다른 닭들만 보다가 죽습니다. 돼지나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학대하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회자: 네, 그렇군요. 그런데 고기를 먹는 것이 먹는 즐거움 때문만이 아니라 건강과 생존을 위해 먹는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채식: 사회자님도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건강을 위해 서려면 오히려 채식을 권장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고기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기를 먹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회자: 동물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과 동물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적인 능력도 그렇고 감정을 느끼는 정도도 다른데요.

나채식: 인간과 동물은 물론 다르지만 고통 받는 것, 죽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자신은 싫어하면서 동물에게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취자의 의견을 전화로 받아 보겠습니다.

**☞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③**

나채식 박사는 동물도 사람과 똑같이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므로 동물 학대를 막자는 차원에서 육식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①, ⑤와 같이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범위를 넓혀서 생각한다면 ②나 ④와 같은 반응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③과 같이 맛있는 고기를 원한다는 것은 육식에 대한 찬반이라는 대담의 주요 내용과 관계가 없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라고 볼 수 없다.

**[5~6] 5번과 6번! 이제 방송 뉴스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나운서: 북한과 중국에 있는 고구려 유산이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취재 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북한과 중국에 있는 고구려 유적이 세계 문화 유산에 동시에 등재되었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서 제 28차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의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중국이 신청한 고구려 왕성, 왕릉, 귀족묘 등 고구려 유적 43곳과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 63기의 세계 문화 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북한의 고분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이 신청한 유적이 함께 등재된 것은 고구려사 왜곡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됩니다. 한국 대학교 소수림 교수의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림 교수: 중국은 이걸 가지고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지방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한층 더 확고하게 하는 명분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고구려의 초기 도읍지였던 오녀 산성과 국내성, 그리고 광개토 대왕비와 장군총 등 굵직굵직한 유적이 포함된 반면 북한은 고분군만 선정되었습니다. 이점은 자칫하면 고구려 역사가 우리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지방 역사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이러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고구려사는 우리의 역사인데요.

기자: 네, 중국 언론들이 세계 문화 유산 등재 사실을 보도하면서 고구려인은 중국의 고대 소수 민족의 하나이며, 고구려는 지방 정권일 뿐이라고 일체히 목청을 높였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계속 들어 보겠습니다.

소수림 교수: 앞으로 중국 및 북한에 있는 고구려 유적이 우리 나라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려야 하고, 평양에 있는 대성 산성, 안악봉, 평양성 등도 빠른 시일 안에 등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등재된 후에는 보존이 부실할 경우 언제든지 위험 유산 리스트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자: 이제부터라도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적극 협력해 고구려 유적의 공동 발굴과 보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나운서: 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5. 핵심 내용의 파악**

**정답 ④**

기자는 고구려 유적이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또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고 의미를 밝히고 있다. 또, 소수림 교수의 말을 통해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경계와 등록되지 않은 다른 유산의 등재 노력, 지속적인 관리 보존 등을 앞으로의 과제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뉴스의 핵심 내용은 ④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6. 말하기 방식의 이해**

**정답 ⑤**

기자는 고구려 유적의 세계 문화 유산 등재에 대해 그 의미를 밝히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소수림 교수의 말을 계속하여 추가 보도하고 있다. 이는 권위 있는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자신을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 쓰기, 어휘·어법 <<<<

**7. 자료를 통한 연상**

**정답 ③**

<보기>의 말에서는 각각 부정적 태도가 연상된다. ㄱ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ㄴ에서는 융통성 없는 태도, ㄷ에서는 무사 안일한 태도, ㄹ에서는 권위적인 태도를 연상할 수 있다. 그러나 ㄷ의 '나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에서 연상되는 것은 독선적인 태도가 아니라 수동적인 태도이다. ㄷ에서 수동적 태도를 연상해야 '맡은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문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③은 연상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8. 자료의 분석과 종합**

**정답 ④**

'남녀 고용 평등'에 관한 <보기>의 글감을 활용하여 (가)에서 '현황 → 원인 → 문제점 → 대책'으로 나누고,

(나)에서 문제 상황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에서 여성의 채용 목표제는 또 다른 역차별을 가져온다는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비정규직의 남녀 비율인데, 이는 적절한 근거라고 볼 수 없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오히려 여성의 채용 목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의 근거로 적절하다. 이는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등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① 육아 문제와 채용 과정상의 차별은 남녀 고용의 불평등을 가져온 직접적 원인이 된다.
- ② 채용 목표제의 강화와 보육 시설의 확충은 불평등의 원인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이다.
- ③ 채용 과정상의 남녀 차별이 빈번하기 때문에 채용 목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은 채용 목표제의 취지와 부합하는 내용이다.
- 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고용 비율을 들어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불가피함을 주장한 것은 적절한 사고 과정이다.

9. 구상의 수정과 보완 (정답) ③

기본 줄거리와 보충 내용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답을 고르면 된다. 가출을 한 소년이 우연히 혼자 사는 할머니를 만나고, 할머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할머니의 사연을 알게 되고 이를 계기로 부모님과 화해를 결심한다는 것이 기본 줄거리이다. 따라서, 앞뒤 내용이 자연스럽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할머니가 자신이 사연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소년과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이를 계기로 결말에서 소년이 이 소설의 주제이기도 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③과 같이 할머니와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결말에서 이를 해소한다는 내용은 전체 줄거리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10. 개요의 수정과 보완 (정답) ③

주어진 글감을 활용하여 '우리 나라의 기부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그것의 원인을 의식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논지의 글을 쓰기 위한 개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③의 글감 활용은 적절치 않다. '르'의 수익금 일부는 빈민 구호 기금으로 기부하는 회사의 사례는 기부가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근거로는 활용이 가능하나, 그것 자체가 기업 성장의 전략적 방법이 된다는 지적은 무리가 있다.

11. 조건에 맞는 표현 (정답) ⑤

<보기>에 주어진 조건을 가장 잘 반영하여 표현한 것은 ⑤이다. '두꺼비 늪'을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도시에 숨결을 불어넣는 공간'이라고 언급하여 앞의 '자연은 인간의 소중한 보금자리'라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생태 체험 학습장으로의 활용'을 들어 공익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이곳을 지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와 같이 완곡하게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12. 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 (정답) ②

어휘의 사용이나 문장 호응 등을 고려하여 고쳐 쓰기 방안을 적절히 제시했는지 묻고 있다. ㉠의 우리 문화가 수직적이라는 외국인의 지적은 정서적으로 거절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는 앞뒤 문맥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은 '그저 그만하게'라는 뜻으로 쓰인 것으로 '웬만큼'이 맞는 표현이다. ㉢은 앞뒤 문장을 고려할 때, '더군다나'나 '게다가' 같은 첨가의 의미를 가진 부사가 오는 것이 어울린다.

13.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분 (정답) ①

<보기>는 우리말의 새말의 형성 과정 중 합성어와 파생어를 설명한 부분이다. 밑줄 친 내용은 파생어의 형성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답지에서 이와 같이 어근과 접사가 결합된 단어를 찾으려 한다. ①의 '강마르다'는 '호된' 또는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강-'과 '마르다'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②~⑤는 실질 형태소가 둘 이상 합해져서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진 합성어에 해당된다.

14. 어휘의 올바른 사용 (정답) 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어휘의 사용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제이다. '와중에도'의 '와중(渦中)'은 '일이나 사건 따위가 시끄럽고 복잡하게 벌어지는 가운데'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⑤의 '모두들 평안하게 잠든 와중에도~'는 시끄럽고 복잡한 상황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므로 적절한 쓰임이 아니다. ③ '구구절절(句句節節)'은 '모든 구절'을 뜻하는 말로, 사연이나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간곡할 때 사용하는 어휘이다. ④ '곤혹(困惑)스럽다'는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사용하는 어휘로, ④의 상황과 부합한다.

>>>> 읽기 / 비문학(사회) <<<<

[15~19] 언론의 범죄 보도

15. 글의 논지 전개 방식 (정답) ②

제시된 글에서는 범죄가 언론 보도의 주요 소재가 되는 이유, 지나친 범죄 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범죄를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범죄

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초상권의 개념 정의와 그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①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초상권에 대한 판결의 사례로서, 글의 일부 내용에 대한 단순 사례 제시이다. 따라서 사례를 열거한 경우도 아니고, 공통적인 논지를 도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③, ④ 제시된 글은 단일 주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일관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립되는 주장을 소개하는 내용이나 새로운 이론을 통해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 ⑤ 제시된 글이 나름대로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는 않다.

**16. 자료의 분석과 종합**

**정답 ①**

빈칸 ㉠, ㉡, ㉢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각각 ‘인격권의 내용’, ‘재산권의 내용’, ‘인격권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이다. 먼저 [A]를 바탕으로 ㉠의 내용을 정리하면, ‘얼굴 및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타인이 함부로 촬영하여 공표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이것을 좀 그럴듯한 말로 표현하면, ‘무단 촬영 및 무단 공표 금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의 내용을 정리하면, 재산권은 ‘인격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나 승낙을 구하지 않고는 인격권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이는 곧 초상 사용에 대한 독점 권리를 의미한다. 끝으로 ㉢의 내용을 추리해 보면, 인격권에 대한 권리 침해는 명예 회복을 통해 보상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는 경제적 손실이라는 재산권 침해 유형과 달리, 정신적 고통이라는 인격권 침해 유형에 따른 것이다.

**17. 구체적 사례에 대한 이해와 적용**

**정답 ③**

사례로 제시된 [B]의 내용에서, 방송 기자가 경찰과 동행하여 취재하던 중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경찰과 동행 취재를 했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18. 비유적인 표현**

**정답 ①**

언론 보도에서 주요 소재로 범죄를 다루는 것은 그것이 취재감으로서 찾기 쉽고 기사화하기 편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범죄가 언론 보도의 주요 소재로 자주 다루어지지만, 한편 범죄 보도가 초래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논란은 언론계 전체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범죄는 언론에게 매혹적인 소재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해 자칫 언론 스스로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비유적인 표현으로는 ‘부메랑’이 가장 적절하다.

- ② ‘아킬레스건’은 ‘약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범죄가 언론에 대해 약점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뜨거운 감자’는 ‘현실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미묘한 문제’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는 ‘범죄’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개별적인 사건이나 문제에 어울리는 표현이다.
- ④ ‘악어의 눈물’은 일반적으로 강자가 약자에게 보이는 ‘거짓 눈물’을 의미한다.
- ⑤ ‘시금석’은 원래 ‘귀금속을 문질러 그 품질을 알아보는 데 쓰이던 검은 빛의 단단한 돌’을 의미하던 말이다. 그런데 그 의미가 확장되어 현대에는 어떤 사물의 가치나 어떤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될 만한 사물을 비유하는 데 쓰이고 있다.

**19. 글의 내용 이해**

**정답 ⑤**

제시된 글에서는 ‘범죄 보도에 있어서 언론이 지녀야 할 윤리적 자세’, ‘범죄 보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그리고 사례를 통한 ‘언론(취재)의 자유와 초상권의 충돌’,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 유형’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범죄 보도에 대한 시청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읽기 / 문학(현대시) <<<<

[20~24]

- (가) 조지훈, 「마음의 태양」
- (나) 김남조, 「설일(雪日)」
- (다) 김광규, 「때」

**20. 작품의 공통점 추출**

**정답 ③**

- (가)는 시련과 고난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괴로움을 참고 견디며 마음 속에 깨끗한 님을 소유한 자만이 이상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태도를 드러낸 작품이고, (나)는 신의 존재를 느낌으로써 고독을 극복하고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려는 새해의 다짐을 노래한 작품이다. 그리고 (다)는 뜨겁고 비가 몰아치는 여름을 거쳐 가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의 결실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노래한 작품이다. 즉, 세 작품에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는데, 시상 전개 과정에서 자연의 이미지(하늘, 눈, 가을)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③이 정답임을 알 수 있다.
- ④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는 양상이라기보다는 현실의 삶에 대한 자세를 노래한 작품들이다.
- ⑤ 자연물의 이미지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면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과 거리를 두는 양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21. 표현상 특징 이해

정답 ⑤

(다)는 대체로 여름에서 가을로 이어지는 계절의 순환, 즉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역전(逆轉)이라는 설명(⑤)은 적절하지 않다.

- ① ‘하늘’로 표상된 밝음과 높음을 지향하는 정신적 자세를 ‘해바라기’와 ‘노고지리’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의 이미지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첫 연과 끝 연이 ‘~처럼(같이) / ~ 하늘을 받들어 / ~ 냇을 살게 하자.’ 형태의 유사한 문장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처음과 끝이 상응하는 구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머리채 긴 바람’, ‘은총의 돌층계’, ‘섭리의 자갈밭’, ‘순수의 얼음꽃’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 ④ ‘앞산의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내고’ 등에서 활유의 기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22. 함축적 의미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②

㉠은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나 고난까지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노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이고도 너그러운 태도를 함축하고 있는 시구는 ㉡이다.

- ㉠ 세상에 홀로 남는 것 같은 상황, 즉 고독한 상황을 드러내는 시구에 해당한다.
- ㉡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시간의 흐름을 형상화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3. 시어의 공통적 기능 이해

정답 ③

(가)의 ‘원광(圓光)’은 괴로움과 슬픔, 고난 등을 달게 수용한 끝에 마침내 마음 속에 떠오르는 하늘의 태양이라 할 수 있다. 시적 화자는 ‘하늘을 받들어’ 맑고 높은 냇(이상)을 지향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원광(圓光)’은 결국 화자가 지향하는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의 ‘무엇’도 여름이 지나 가을로 접어들어 거두어들이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시어라 할 수 있다.

24. 내용 및 정서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①

(가)의 [A]연에는 괴로움을 웃음으로 대하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답게 여겨진다는 인식,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같이 능동적·긍정적으로 대응하여 이상 세계를 지향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고난이나 시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긍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①이다. 세찬 바람과 눈보라가 치는 겨울이 와도

춡다고 하지 않고 따스한 봄날과 무성한 숲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것들이 ‘따뜻한 털옷’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표현이다.

- ③ 시련이나 고난에 대응하는 자세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에 대한 너그럽고 원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 ④ 삶을 험난하게 인식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드러낸 내용이다.
- ⑤ 주위의 작은 것들, 이웃의 아픔이나 슬픔과 함께 하겠다는 자세를 드러낸 내용이다.

>>> 읽기 / 문학(현대 소설) <<<<

[25~29]

박완서, 「엄마의 말뚝 2」

25. 작품의 개괄적 특성 이해

정답 ④

이 소설의 서술자는 ‘나’인데, 어머니가 누워 있는 현재의 상황을 서술하는 중간에 오빠의 죽음과 화장과 관련된 과거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서술하는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과거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서술 방식(④)이 드러나 있다.

- ① 분단 상황으로 인한 어머니의 한과 관련된 이야기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인물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양상으로 볼 수 없다.
- ② 어머니 및 오빠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지하게 서술해 가는 양상이다. 장면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이 아니며 긴박한 분위기와도 거리가 멀다.

26. 행동에 담긴 이유 파악

정답 ⑤

㉠에 드러난 알맞은 온기와 악력(握力: 손으로 쥐는 힘)은, 묘지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딸에게 자신이 죽거든 묘지를 쓰지 말고 화장을 하라는 당부를 확고하게 전달하려는 행동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분단 상황으로 인해 가지 못하는 고향을, 죽어서 먼지와 바람이 되어 가고자 하는 비통한 의지(㉡)의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27. 발화에 담긴 근거 파악

정답 ①

어머니가 딸에게 자신이 죽으면 화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밖에 없다고 말한 것은, 과거에 아들(오빠)의 시신을 화장하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뿌렸던 체험의 동질성(①)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에 이어지는 “오빠처럼요?” /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라는 대화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28. 인물의 심리 이해 (정답) ④

‘나’의 어머니는 과거에 오빠의 시신을 화장하여, 지척으로 보이되 분단으로 인해 갈 수 없는 고향을 향해 뿌렸다. 그리고 지금 투병 중인 어머니는 딸(‘나’)에게 자신이 죽으면 과거의 그때처럼 화장을 하여 그 자리에 뿌려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는 결국 죽은 아들의 시신을 화장하여 고향으로 떠나보낸 것처럼 자신도 죽어서나마 고향으로 가고 싶은 어머니의 한 맺힌 마음이라 할 수 있다.

- ①, ② 마지막 부분의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 ③ 분단으로 인해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나 있을 뿐, 고향을 떠난 일을 후회하는 마음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어머니는 아들을 화장하여 고향 방향으로 날려 보낸 것처럼, 자신도 꼭 그렇게 해 달라고 당부하는 상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9. 작품의 이해와 감상 (정답) ③

작품에 드러나 있는 현실 인식의 양상을 이해하여, 그 의미를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확장·심화·발전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③의 경우는 <보기>에 제시된 경로를 제대로 따르지 못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즉, [A] 부분에 담긴 의미를 개인(어머니)이 분단 상황이라는 거대한 적과 대결하는 양상으로 이해한 내용인데, 이 의미를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보기>의 ‘(2) 의미 해석의 확장’)을 거치지 않은 내용이다. 더욱이 해석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 읽기 / 비문학(고전 인문) <<<<

[30~33]

맹자, 「맹자 — 진심편(下)(37장)」

30. 인물에 대한 반응 평가 (정답) ②

2문단을 보면, 공자는 중도(中道)의 인물을 얻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면 차선의 인물로서 광견(狂獫)한 자와 함께 하겠다고 되어 있다. 이는 광(狂)한 자는 진취적이고, 견(獫)한 자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더러운 짓)’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중도(中道)의 인물이란 해야 할 바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않는, 주관이 뚜렷한 유형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31.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 ①

맹자는, 향원이 광한 자와 견한 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은 음흉하게 세상에 아첨하기 때문에 향원을 ‘덕을 해치는

자’이며 ‘사이비’라고 한 공자의 말을 빌려 향원을 비판하고 있다.

32. 태도 및 관점의 추리와 적용 (정답) ⑤

이 글에서 맹자는 향원이 음흉하게 세상에 아첨하는 자이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하면서 군자는 떳떳한 도로 돌아갈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맥상 ‘군자의 떳떳한 도’란 세상에 아첨하지 아니하며 군자로서 행하는 바른 길을 의미할 것이다. 옛 성인을 좇아서 가던 길(학문 수양의 길)에 힘쓰자는 내용의 ⑤(이황의 ‘도산십이곡’)가 ①의 삶의 자세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①은 현실에 타협하는 삶의 자세를, ②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의 자세를, ③은 백성을 아끼고 보살피려는 삶의 자세를, ④는 나라를 지키는 무인으로서의 호방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33. 내용의 이해를 통한 판단 (정답) ⑤

공자는, 향원이 덕을 해치는 자라고 하면서 그를 싫어하는 이유로, 같은 듯하면서 아닌 것(사이비)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향원이 음흉하게 세상에 아첨하면서 점잖은 사람처럼 행동함으로써 덕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① ㉠ 공자가 진나라에 있으면서 노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한 이유는 고향인 노나라에는 중도의 인물은 없지만, 그 다음이라고 할 수 있는 광견 선비들이 있기 때문이다.
- ② ㉡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 하는 사람은 광한 자로, 뜻이 높고 크지만 자신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 ③ ㉢는 향원을 가리키며, 향원을 공자가 비판하는 이유는 향원이 덕을 해치는 자이기 때문이다.
- ④ ㉣ ‘더불어 요순의 도에 들어서지 못하는 자’란 향원을 일컫는다. 향원은 유행하는 풍속에 동화하고 더러운 세상에 영합하면서도 충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굴고 청렴결백한 듯이 행동하여 여러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스스로는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 읽기 / 비문학(과학) <<<<

[34~38]

원소의 기원

34. 내용의 종합적 판단 (정답) ③

2문단에 따르면, 수소와 일부 헬륨만이 우주가 생성될 때 일어난 대폭발로 생겼다.

35.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위 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의 기원을 우주가 생겨날 때 만들어진 것,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묶어 설명하고 있으며(ㄴ), ‘핵융합’, ‘핵자’, ‘결합 에너지’ 등의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ㄷ).

36. 세부 내용의 파악 **정답 ②**

2문단에 보면,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생성 초기에는 수소로부터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천만 도(10<sup>7</sup>K) 이상의 높은 온도가 필요하며, 헬륨을 생성하는 단계가 끝난 후 별의 중심부 온도가 일억 도(10<sup>8</sup>K) 정도로 올라가면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헬륨은 천만 도(10<sup>7</sup>K) 이상 일억 도(10<sup>8</sup>K) 미만의 온도에서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37. 사실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 ④**

4문단에 의하면 별이 폭발할 때 핵융합에 의해 만들어진 철이 많아질수록 별의 수축이 일어나고, 별 중심부로의 수축이 진행될수록 온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38. 내용의 구체적 적용 **정답 ①**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질량이 클수록 핵자 결합 에너지가 크지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질량이 클수록 핵자 결합 에너지가 작아진다고 하였으므로 그래프는 ①의 양상을 띠는 것이다.

>>> 읽기 / 비문학(생활·언어) <<<<

[39~42] —————  
환유 표현

39.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 이 글은 비유법의 하나인 환유(換喩) 표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로, 환유법이 쓰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로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 ② 화제의 나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중심 화제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 ③ 상반된 견해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④ 핵심 개념인 ‘환유’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A] 부분에 문답 형식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이것이 통념을 부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40. 세부 내용의 이해 **정답 ④**

환유는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며, 화자와 청자 사이에 상황에 대한

공유(共有)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④와 같이 ‘특정 사물이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반응이다.

41. 언어의 일반적 특징 **정답 ④**

[A]는 환유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는 언어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환유 표현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를 답지와 연결지어 보면, ④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42. 구체적 사례의 적용 **정답 ②**

㉠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부분이 전체를 확대 지칭하는 표현의 예이다. 그러나 ②에서 ‘비둘기’가 ‘평화’를 지칭하는 것은 관습적 상징의 예로 들 수 있는 내용이다.

- ① ‘한 그릇, 두 그릇’에서 ‘그릇’은 ‘용기’라는 뜻보다는 음식의 수량을 세는 단위로서 ‘담긴 내용물’이라는 뜻이 강하다.
- ④ ‘김 과장이 지위나 직위를 옮겼다’는 뜻도 될 수 있고, ‘김 과장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이동했다’는 뜻도 될 수 있다.
- ⑤ ‘손’이 ‘일손’의 의미로 쓰일 경우, 식당에서는 ‘요리사’를 병원에서는 ‘의사’를 지칭한다.

>>>> 읽기 / 문학(현대 수필) <<<<

[43~47] —————  
이태준, 「화단(花壇)」

43.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 글쓴이는 자신이 체험한 일에 대해 사실적으로 담담하게 풀어나가고 있을 뿐, 이를 상징화하여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체험을 상징화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문학의 여러 갈래 중 ‘시’의 표현 방식에 가까운 설명이다.
- ① ‘벌벌’, ‘도닥도닥’, ‘가득가득’ 등 의태어를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② 노(老)주인이 화단을 가꾸는 모습을 소재로 하여 글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전체적으로 요즈음에는 잘 쓰이지 않는 어휘들을 구사하여 글쓴이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노인이 자신의 화단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 글쓴이는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유쾌를 느낄 뿐이었다’고 하며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44. 어휘의 뜻풀이 **정답 ⑤**

‘안손님’은 ‘남자 손님’을 뜻하는 ‘바깥손님’과 상대되는 말로 ‘여자 손님’을 뜻한다.  
① 일삼다 — 일로 생각하다.



- ② 어정거리다 — 키가 큰 사람이나 짐승이 이리저리 천천히 걷다.
- ③ 순조 — 일이 아무 탈 없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어 가는 상태
- ④ 약(이) 오르다 — 고추나 담배 따위가 잘 자라 자극적인 성분이 많아지다.

**45. 글쓴이의 의도 파악** (정답) ②

글쓴이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연은 그것 자체로 최선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6. 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 ②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자연 경관의 아름다운 모습을 은하수를 베어 낸 것과 같이 매우 호화스럽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면서 놀라워하고 있다. 특히 '그 누가 베어 내어'란 표현에서, 자연의 섭리를 인간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문맥적으로 의미가 상통하는 것은 ①의 '기적'이다. 이 글에서 ①은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풀잎사귀들이 소생한 모습을 보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자연의 섭리가 해 냈다는 것에 놀라움을 드러낸 표현이다.

**47. 대상에 대한 시각의 공통점** (정답) ③

<보기>의 화자는 '선옹(仙翁)'이 울타리 밑 양지쪽에 오이씨를 뿌려 두고 열심히 가꾸는 모습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가 이 글의 '노인'에게 그러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노래를 들려준다고 한다면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③은 정극인의 「상춘곡(賞春曲)」의 일부로 자연 친화와 안빈낙도 사상을 보여 주고 있다.

>>>> 읽기 / 비문학(예술) <<<<

[48~51]

감상을 통한 감상자와 예술 작품의 소통

**48. 주제 파악** (정답) ⑤

마지막 문단에서 글쓴이는, "감상은 감상자와 예술 작품이 양방향으로 초월하는 미적 체험의 과정이다. 예술 작품은 감상자를 향하여, 감상자는 예술 작품을 향하여 서로 열려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감상자는 대화방식의 감상을 통해 예술 작품과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⑤가 이 글의 주제로 적절하다.

**49. 단어의 문맥적 의미 활용** (정답) ②

[A]의 마지막 부분에, "감상자가 예술 작품과 만나는 역사적 순간의 참조 체계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며, 이러한 새로운 관계에 의거해 감상자는 예술 작품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 낸다."라고 나와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을 차례로 묶은 것은 '감상자 - 참조 체계 - 관계 - 의미'(②)이다.

**50. 문장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①

"예술 작품이 계속 전해지지만 한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참조 체계를 통해 변화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게 된다. 근본적으로 예술 작품의 의미는 무궁하다."라는 설명을 통해, ㉠는 셰익스피어 작품의 의미는 준거틀(참조 체계)이 달라짐에 따라 변화한다(①)는 것을 알 수 있다.

**51.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②

"감상 과정에서 예술 작품과 감상자는 서로 다른 관점과 개성을 지닌 두 명의 개인과 마찬가지로 묻고 대답하면서 서로의 관점을 교정해 가는 개방적 태도를 갖는다. 자신의 시계(視界)속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진리로 나아간다."라는 앞 문장을 통해 '시계(視界)'라는 말은 '자신의 관점과 개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술 작품을 자신이 갖고 있는 전이해(前理解)의 예증(例證)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라는 진술을 통해 '전이해(前理解)'도 '자신의 관점과 개성'이라는 의미로 유추해 볼 수 있다.

>>>> 읽기 / 문학(고전 소설) <<<<

[52~56]

박지원, 「민옹전(閔翁傳)」

**52. 소설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이 글은 '민 영감'과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신선에 관한 이야기, 토끼와 두꺼비에 관한 이야기, 밥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에피소드(=삽화)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① '민 영감'과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이 글은 대부분 대화를 통해 진행되고 있지만, 극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는 않다.
- ③ 대화체의 글이므로 인물의 내면 심리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단지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 ⑤ 특별히 문체가 간결하다고도 볼 수 없으며, 속도감 있게 진행될 만한 사건도 없다.

53. 인물의 성격에 대한 이해 [정답] ③

‘민 영감’은 신선을 가난한 사람이라 하고, 불사약을 발이라고 하는 등 헛된 것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풍자했다. 또 옛사람의 기이한 절개나 거룩한 발자취를 흠모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당시 현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질문의 주제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소망한 바를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민 영감’은 학식이 풍부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손님들은 단지 궁금증에서 질문을 하고 관청에서 시키는 일을 하며 탐관오리를 풍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정치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4. 부분적 의도 파악 [정답] ②

[A]에서는, 한 어린이가 글을 통해 옛날 천황씨 때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두루 꿰고 있으므로 글 많이 읽은 자가 나이가 가장 많다고 말하고 있다. 즉 ‘민 영감’은 책을 통해 선인들의 역사와 경험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②가 ‘민 영감’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다.

55. 문맥적 의미의 이해와 종합 [정답] ③

<보기>의 ‘측면 공격이나 역습’이라는 말은 말을 문장 그대로의 의미로 나타내지 않고 우회적으로 풍자하는 것을 뜻한다. ㉠, ㉡, ㉣, ㉤는 모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풍자적인 진술이다. 그러나 ㉢는 단순한 진술일 뿐 풍자적인 의도가 배어 있는 문장은 아니다.

56. 한자 성어의 적용 [정답] ①

- ㉠에서 ‘민 영감’은 옛 사람의 절개나 발자취를 흠모하여 의기가 북받쳐서 흥분하기도 하고, 한숨 쉬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를 통해 볼때, ‘민 영감’의 심정은 ‘슬프고 분하여 의분이 북받친다’는 ‘비분강개(悲憤慷慨)’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② 백수지탄(麥秀之嘆) :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기자가 은나라가 망한 뒤에도 보리만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한탄했다는 데서 유래함.
- ③ 망양지탄(亡羊之歎) : 갈림길이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④ 후생가외(後生可畏) : 뒤에 난 사람은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배는 나이가 젊고 의기가 장하므로 계속 매진하면 선배를 능가한다는 말
- ⑤ 후회막급(後悔莫及) :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말

[57~60] 공개키의 암호화 방식

57. 중심 내용의 파악 [정답] ②

(나)에서 공개키는 다른 컴퓨터에 알려주고, 비밀키는 ‘내 컴퓨터’에만 보관하여 비밀키가 있어야만 해독될 수 있기에 공개키는 다른 컴퓨터에 알려 주어도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의 공개키와 비밀키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성하는 방법(②)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니다.

- ① (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정보 유출의 위험을 막기 위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효용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③ (다)는 정보가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자신의 비밀키로 해독하여 원래 신용 카드 정보를 얻게 되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동작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라)는 공개키는 다른 컴퓨터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정보가 도용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송신자를 확인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공개키에서 비밀키를 알아내는 것은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안전성에 언급했다.

58. 세부 내용의 이해 [정답] ④

정보를 주고받는 컴퓨터끼리 공개키는 서로 교환하지만 비밀키를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정보를 자신의 비밀키로 해독하는 과정을 보아 서로의 비밀키는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정보를 주고받는 당사자들이 그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공통의 비밀키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② (다)에서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전송한 정보를 비밀키로 해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59. 어휘 의미의 이해 [정답] ③

국어 사전에서 ‘빼내다’에 대한 여러 의미 중에서 ㉠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로 입력한 내 신용 카드의 정보를 ‘몰래 돌려내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③번이 정답이다.

60. 내용의 이해와 구체적 적용 [정답] ⑤

㉠의 내용에서는 원래의 단어와 암호화된 단어가 함께 전송되어 이 두 정보를 해독하고, 마지막으로 두 정보를 해독한 것과 원래의 단어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그림을 찾으면 된다. 설명에 맞는 그림은 ⑤로 확인할 수 있다.